

보도시점 2026. 9. 18.(금) 14:00 배포 2026. 9. 18.(금) 10:00

이형일 1차관, 공릉 도깨비시장 찾아 추석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현장 점검

- 9.3~9.30, 역대 최대 추석 성수품 할인지원(1,930억원), 성수품 공급(18.5만톤)
- 추석 성수품 장바구니 물가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상황 점검
- 경제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민생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이형일 1차관은 공릉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9.1일 발표), 보완대책(9.9일 발표)에 따라 9.3~9.30일간 역대 최대 수준의 대규모 할인지원(1,930억원, 전년(900억원)대비 2배 이상) 및 성수품 공급 확대(18.5만톤)를 추진 중이다. 9월 16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3만톤 중 12.1만톤, 수산물 2.2만톤 중 6천톤 공급을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기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한우, 한돈, 닭고기 등에 대해 자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농협 등을 통한 대규모 할인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수산물 각 300개('25년 각 200개))에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에 대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장보기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한다.

* (3.4~6.7만원 구매시) 1만원 환급 (6.7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환급

이 차관은 공릉 도깨비시장 내 현장환급 부스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장환급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환급행사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부스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시스템, 번호표 키오스크, 현장인력 등을 확충·배치하였다.

이 차관은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살펴보고, 환급행사가 장보기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는 운영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7년 예산안에 지역 대표 관광 거점·문화 등을 연계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427억원('26년 315억원, +35.6%)과 폭염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562억원('26년 132억원, +325.8%)을 반영하였다. 제품혁신·브랜드화·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원('26년 400억원, +100%)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전통시장은 국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민생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물가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면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현장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민생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임순목	(imsm30@korea.kr)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윤영	(044-215-2820)
		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park0916@korea.kr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심상진	(044-215-2870)
		담당자	사무관	황지현	(sk12@korea.kr)